

# '94 전자산업의 최근 동향 및 전망

본회 기획과

## 1. '94년 전자산업 전망

### 1) 개 황

'94년 하반기 전자산업 경기는 '93년보다 호전될 전망이나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더 호전될 전망이다.

이는 하반기에 호전될 것이라고 보는 업체가 전체의 81%인데 비해 악화될 것으로 보는 업체는 5%에 불과한 것에 기인된다.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크게 호전	16	18	26	29
대체로 호전	43	47	47	52
별변화 없음	26	29	13	14
대체로 악화	5	6	3	4
크게 더 악화	-	-	1	1
계	90	100	90	100

경기호전의 요인으로는 엔화 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의 회복이 35%, 내수경기 활성화에 따른 수요 확대가 21%,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가 18%, 신시장 개척 등으로 인한 신규

수요의 증대 13%, 세계경제의 회복이 10% 등 엔고로 인한 수출경쟁력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가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호전의 요인>

구 분	조사업체	비중(%)
엔화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회복	26	35
내수시장의 수요 확대	15	21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	13	18
신시장 개척 등 신규수요의 증대	10	13
세계 경제의 회복	7	10
기타	2	3
계	73	100

반면 세계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후발 개도국의 추격에 의한 수출시장 및 내수시장 잠식이 우려되고 있어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고급화 등 가격 경쟁력 회복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 2) 수출 시장 여건 및 전망

미국시장에서는 지난 해 4/4분기 이후 기대 이상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 회복 전망 호조 예상품목으로는 전자렌지, 유·무선전화기, 모니터, 반도체, PCB 등으로 그 요인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엔고에 의한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진 예상품목으로는 C-TV, VCR, 컴퓨터, 자기테이프 등으로 후발 개도국의 추격에 의한 경쟁력 약화 및 공급과잉이 저조 요인이 되고 있다.

편집자주 : 본고는 '94년 하반기 전자산업의 경기를 예측, 업계의 경영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전자산업의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코자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30일간)까지 본회 회원사 530개사 대상 회수업체 90개사의 실문을 조사 분석한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회 기획과 (553-0941/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U 시장은 시장이 가장 큰 독일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어 EU의 경기 회복을 주도할 전망이다.

호조 예상품목으로 음향기기, VCR, 세탁기, 휴대용전화기, 반도체 등으로 그 요인은 엔고로 인한 가격경쟁력 회복과 품질 향상이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부진 예상품목으로는 C-TV, 유선전화기, 컴퓨터, 자기테이프 등으로 EU시장의 수요 정체, 무역 장벽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시장은 무역흑자 규모 축소방향으로 전환, 중·저가제품 생산 축소, 내수 물량 수입에 의존, 엔고로 인한 경기 회복 지연,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내수 확대 정책으로 하반기 이후 회복이 예상된다.

호조 예상품목으로는 C-TV, VCR, 냉장고, 전자렌지, 반도체, TAPE 등으로 엔화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회복이 주요인이 될 것이며 부진 예상품목으로는 유선전화기 등이 엔고로 인한 수요 감퇴와 경쟁력 저하 등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기타시장(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에서는 호조 품목으로 반도체, C-TV, 음극선관, VCR 등으로 이는 엔화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회복이 그 요인이 되고 있다.

부진 예상품목으로는 자기테이프, 스위치 등 동남아산 제품의 품질 향상이 주요인이 될 것이다.

### 3) 전자산업 수급 추정

생산에서는 상반기에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과 엔화 강세로 인한 수출 호조, 내수 경기의 활성화 등으로 전년보다 19.6%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하반기에도 미국 등의 경기호조가 지속되고 일본 시장의 경기도 어느정도 회복되고 엔화 강세도 지속될것으로 보여 연말까지는 상반기

### 시장별 전망

구 분	호조예상품목	부진예상품목
미국 시장	전자렌지 휴대용전화기 반도체 PCB	C-TV VCR 컴퓨터 자기테이프
EU 시장	음향기기 VCR 세탁기 휴대용전화기 반도체	C-TV 유선전화기 컴퓨터 자기테이프
일본 시장	C-TV VCR 냉장고 전자렌지 반도체 TAPE	유선전화기
기 타 시 장 (동남아, 중남미 등)	반도체 C-TV VCR 음극선관 부품	자기테이프 스위치

보다도 호전된 22.9%가 증가한 3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수출은 상반기에는 엔고의 영향 및 선진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PCB의 높은 신장과 가정용기기의 수출 회복, 휴대용 전화기 등의 호조 지속으로 전년 동기보다 22.5%의 높은 증가를 보일 것이다.

하반기에도 엔화의 상승 지속과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전자부품의 호조 지속과 모니터 등의 수출 회복으로 연말까지는 24.6%가

구분	상반기	하반기	'94 전망	증감율(%)			
				상반기	하반기	'94전망	
생산	10억원	17,210	18,950	36,240	19.6	25.9	22.9
수출	백만불	13,180	14,530	27,710	22.5	28.7	24.6
로컬	백만불	1,880	2,400	4,280	20.0	24.0	22.2
시판	10억원	4,200	5,423	9,623	21.7	18.2	19.7

증가한 277억불이 예상된다.

시판은 작년 하반기부터 호전되기 시작한 내수경기는 투자의 활성화, 소비의 증가, 신상품 개발 등으로 상반기에 21.7%, 연말까지는 19.7의 성장으로 냉장고, 컴퓨터, 이동전화기, 반도체 등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 4) 부문별 전망

##### 가. 가정용기기

상반기에는 엔고의 영향과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의 신상품 수출 확대 및 미국 시장의 경기 회복, 내수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음향기기, VTR, 전자렌지 및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 가전제품의 호전으로 생산 9.1%, 수출 10.2%, 시판 14.0%의 성장이 예상되고 하반기에도 음향기기, 전자렌지, 냉장고, 세탁기 등의 수출 호전 지속으로 연말까지는 생산 12.4%, 수출 11.1%, 시판 13.2%의 성장에 이를 전망이다.

주요 품목별로는 CTV가 세계 경기 회복,

신상품 수출 증가, 해외 시장 개척 등에 힘입어 상반기에 생산 13.6%, 수출 7.6%, 시판 20.5%의 비교적 견실한 성장이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주 수출시장인 EU지역에서의 일본 현지산 제품가격 인하에 따른 중·대형의 수요 감소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연말까지는 생산 11.2%, 수출 6.6%, 시판 10.0%의 증가가 예상된다.

VTR은 고기능, 고부가가치화, 북방지역에서의 수요 증가, 캠코더 등의 첨단제품 수출호조 등으로 수출은 상반기 14.3%, 연말까지는 13.4%의 증가가 예상되나 시판은 5.6%의 저조한 성장이 예상된다.

음향기기는 신상품 개발 등으로 EU지역에서의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상반기에 생산 12.0%, 수출 7.5%, 연말까지는 생산 17.8%, 수출 9.6%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

전자렌지는 한국형 전자렌지의 개발 보급으로 수출은 상반기에 11.0%, 연말까지는 12.1%의 성장이 예상된다.

냉장고는 중동, 중남미 및 북방시장 확대로

#### 주요 가정용기기 전망

구 분	생산(10억원)			수출(백만불)			시판(10억원)		
	상반기	하반기	'94전망	상반기	하반기	'94전망	상반기	하반기	'94전망
가정용기기	4,900 (9.1)	5,200 (15.6)	10,100 (12.4)	3,300 (10.2)	3,650 (12.0)	6,950 (11.1)	2,010 (14.0)	2,263 (12.5)	4,273 (13.2)
C-TV	1,100 (13.6)	1,000 (9.9)	2,100 (11.2)	737 (7.6)	740 (5.7)	1,477 (6.6)	410 (20.5)	380 (0.5)	790 (10.0)
VTR	710 (12.5)	860 (4.9)	1,570 (8.8)	677 (14.3)	820 (14.2)	1,485 (13.4)	160 (7.1)	190 (4.4)	350 (5.6)
음향기기	1,100 (12.0)	1,310 (23.2)	2,410 (17.8)	945 (7.5)	1,150 (11.3)	2,095 (9.6)	330 (16.2)	380 (12.8)	710 (14.3)
전자렌지	380 (11.1)	400 (14.2)	780 (12.7)	354 (11.0)	380 (13.0)	734 (12.1)	76 (36.9)	85 (8.7)	161 (20.4)
냉장고	645 (24.0)	570 (13.3)	1,215 (18.7)	197 (17.5)	205 (12.6)	402 (14.9)	476 (19.9)	380 (17.1)	856 (18.6)
세탁기	360 (3.4)	455 (7.6)	815 (5.8)	75 (56.3)	79 (43.6)	154 (50.0)	289 (7.9)	380 (8.0)	669 (8.0)

주) ( )은 증가율

수출이 상반기에 17.5%, 연말까지는 14.9%의 성장이 예상된다.

나. 산업용기기

모니터를 위시한 주변기기 수출 및 컴퓨터 내수 호조, 휴대용 전화기 등의 수출 증가로 생산 21.2%, 수출 7.1%, 시판 27.2%정도 증가가 예상된다.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내수 확대로 생산 23.8%, 시판 41.6%의 높은 신장이 예상되나 수출은 세계시장의 수요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가격경쟁력의 약화로 10%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586급 팬터엄, 그린기능 모니터 및 17" 대형모니터, 고기능 프린터 등의 신제품의 본격 출시와 엔고에 따른 모니터 등의 수출이 활기를 띠것으로 전망되어 연말까지는 생산 24.2%, 수출 13.0%, 시판 26.8%의 성장이 전망된다.

유무선 전화기는 미국시장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한 무선통신기기의 수요증가 및 엔고에 따른 가격 경쟁력 회복과 휴대폰, 카폰 등 일반 소비자의 수요 증가로 상반기에 수출 20.2%, 시판 58.2% 연말까지는

수출 22.8%, 시판 35.1%의 증가가 예상된다. 교환기는 러시아, 중국 등 주문 생산국의 하반기 수출 증가 예상으로 수출은 6.1%의 성장이 예상되나 시판은 내수 시장 포화단계로 10.7%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다. 전자부품

전자부품은 세계 경기회복 및 PC, 소프트웨어 등의 고기능화에 따른 4M DRAM의 수요 증가와 16M DRAM의 수출 본격화, 엔고의 영향 및 전자기기의 고부가가치화에 따른 PCB, 축전기 등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상반기에 생산이 33.4%, 수출 40.9%, 시판 25.6%, 연말까지는 생산 32.6%, 수출 40.1%, 시판 22.6%의 높은 증가가 예상된다.

반도체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급증, 컴퓨터 보급 확대, PC 및 소프트웨어의 고기능화에 따른 DRAM의 수요 확대 및 지속적인 수출 증가, 16M DRAM의 수출 본격화, 엔고에 따른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상반기에 생산 58.8%, 수출 58.2%, 연말까지는 생산 57.0%, 수출 54.3%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음극선관은 동남아 지역의 수요 증가와 품질

주요 산업용 기기 전망

구 분	생산(10억원)			수출(백만불)			시판(10억원)		
	상반기	하반기	'94전망	상반기	하반기	'94전망	상반기	하반기	'94전망
산업용기기	3,500 (12.1)	4,450 (29.5)	7,950 (21.2)	2,400 (-2.2)	2,880 (16.5)	5,280 (7.1)	1,240 (33.2)	2,090 (24.0)	3,330 (27.2)
컴퓨터 및 주변기기	1,900 (23.8)	2,340 (24.6)	4,240 (24.2)	1,436 (-10.0)	1,964 (37.5)	3,500 (13.0)	670 (41.6)	730 (9.6)	1,400 (26.8)
유 무 선 전 화 기 (이동전화기 포함교환기)	330 (22.2)	450 (10.2)	780 (19.4)	232 (20.2)	258 (25.2)	490 (22.8)	137 (58.2)	240 (12.4)	377 (35.1)
교환기	170 (-33.6)	310 (49.0)	480 (3.4)	35 (-23.9)	70 (32.1)	105 (6.1)	140 (-29.3)	242 (5.2)	382 (-10.7)

주) ( )은 증가율

## 주요 전자부품 전망

구 분	생산(10억원)			수출(백만불)			시판(10억원)		
	상반기	하반기	'94전망	상반기	하반기	'94전망	상반기	하반기	'94전망
전자부품	8.810 (33.4)	9.300 (31.9)	18.190 (32.6)	7.480 (40.9)	8.000 (39.4)	15.480 (40.1)	950 (25.6)	1,070 (20.0)	2,020 (22.6)
반도체	5,050 (58.8)	5,250 (55.3)	10,300 (57.0)	5,390 (58.2)	5,450 (50.5)	10,840 (54.3)	240 (32.0)	260 (30.0)	500 (31.2)
음극선관	862 (12.8)	998 (16.2)	1,860 (14.6)	436 (5.8)	584 (24.2)	1,020 (14.0)	99 (8.8)	110 (7.8)	209 (8.2)
자기테이프	400 (-4.0)	420 (-0.9)	820 (-2.4)	400 (-2.9)	400 (-2.7)	800 (-2.8)	60 (-14.3)	75 (7.1)	135 (-3.5)
PCB	350 (45.8)	500 (48.4)	850 (47.3)	155 (52.0)	180 (55.2)	335 (53.7)	50 (24.1)	60 (21.5)	110 (22.6)

주) ( )은 증가율

향상, 신시장 개척 활동 강화, 하반기에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모니터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생산 14.6%, 수출 14.0%, 시판 8.2%의 증가가 예상된다.

자기테이프는 CD, LD 등 대체품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 임금 상승에 따른 해외 현지생산 증가, 세계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생산-2.4%, 수출-2.8%, 시판-3.5%의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다.

PCB는 기기 수요 증가 및 세트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에 따른 수요 증가, 품질 향상 등으로 미국, 동남아 등지의 수출 호조와 국내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생산 47.3%, 수출 53.7%, 시판 22.6%의 성장이 예상된다.

## 2. 경영여건 전망

### 1) 투자전망

'94년의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는 엔고로 인한 수출 확대와 내수경기 회복에 힘입어 '93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 총투자액은 '93년보다 47.6%가 증가된 6조 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시설투자는 라인증설, 자동화 등으로 작년보

다 57.0% 증가된 4조 7,000억원, 기술개발 투자는 26.2%가 증가한 1조 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설 및 기술개발 투자가 크게 증대되는 분야는 반도체, CPT 등 핵심부품이며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 분야에서의 라인증설 투자와 사회적 요구와 그린라운드 등에 대비한 환경시설, 물류시설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전망이다.

(단위 : 억원)

구 분	'93	'94	증감율(%)
총 투자액	42,890	63,310	47.6
시설 투자	29,840	46,840	57.0
기술개발투자	13,050	16,470	26.2

부문별로는 총투자의 80%인 3조 7250억원이 전자부품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이는 대형투자가 소요되는 반도체, LCD 등의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시설 확충과 PCB, 자기테이프 등의 원가절감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동화 설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산업용은 칼라 모니터의 수요 증가로 인한 생산라인의 확대, 이동통신, 위성방송 등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가정용기기는 캠코더 등의 첨단제품 및 기존

생산라인의 자동화 등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며 환경오염 방지, 물류센터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 시설투자

(단위 : 억원)

구분	'93실적	상반기	하반기	'94 계	증가율
시설투자계	29,840 (100)	33,180 (70.8)	13,660 (29.2)	46,840 (100)	57.0
가정용	4,260 (14.3)	2,870	2,770	5,640 (12.0)	32.4
산업용	2,450 (8.2)	2,330	1,620	3,950 (8.5)	61.2
전자부품	23,130 (77.5)	27,980	9,270	37,250 (79.5)	61.0

주) ( )은 비중

기술개발투자는 전년보다 26.2%가 증가한 1조 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은 5%가 감소한 반면 자체개발 투자는 30.8%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선진국과의 특허분쟁 심화, 고가의 특허료 지불, 핵심기술 이전 기피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의 어려움으로 자체개발이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단위 : 억원)

구분	'93	'94	증감율(%)
기술개발투자계	13,050	16,470	26.2
자체개발투자	11,400	14,910	30.8
기술도입	1,650	1,560	-5.5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사내 유보자금 등 내부자금 조달이 42%로 가장 많고 일반 금융기관에서의 차입이 34%, 정부지원 자금의 이용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투자 원활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자금의 대폭적인 확충과 금융기관의 담보 완화 등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자금 조달방법

구분	조사업체	비중(%)
사내 유보자금 등 내부자금	38	42
일반 금융기관 차입	31	34
정부지원 자금	16	18
주식, 사채 등 직접금융 이용	5	6
계	90	100

자금조달시 애로사항으로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책지원 자금의 부족이 53%, 정책자금 이용의 절차복잡이 22%, 재무구조의 취약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자금 조달시 애로요인

구분	조사업체	비중(%)
정책 지원자금 부족	48	53
정책자금 이용절차의 복잡	20	22
자체 재무구조의 취약	12	13
금융기관의 이해부족	6	7
기 타	6	7
계	90	100

투자에로 요인으로는 시설투자의 경우 자금조달 곤란이 39%, 경기 불투명이 34%, 수요부진 10%, 수익성 저하 4%, 기능 및 기술인력의 확보 곤란 4%, 각종 인허가 절차의 복잡 3%로 투자자금의 지원 확충과 경기 진작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설 투자시 애로요인

구분	조사업체	비중(%)
자금조달 곤란	35	39
경기 불투명	30	34
수요부진	9	10
수익성 저하	4	4
기능·기술인력 확보 곤란	4	4
각종 인허가 절차의 복잡	3	3
기 타	5	6
계	90	100

기술개발 투자의 경우 시장 불확실로 인한 기술개발 목표의 설정 곤란이 41%로 가장 많고 투자자금 부족이 30%, 기술정보 부족 15%,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미비 6% 등으로 개발자금의 지원 확충 및 시장 예측, 시장정보 분석 등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 기술개발 투자시 애로요인

구 분	조사업체	비 중(%)
시장 불확실로 인한 기술개발 목표의 설정 곤란	37	41
투자자금의 부족	27	30
기술정보, 입수 곤란	14	15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미비	5	6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상 지원 부족	4	5
기 타	3	3
계	90	100

### 2) 인력수급

인력수급 동향을 보면 '94년 전자산업의 생산 근로직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으로 전체의 62%가 부족하다고 응답해 전자업계의 생산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인력의 양적 확대 및 연구개발 인력의 질적수준 향상이 요구된다.

한편 전자업계의 인력수급은 '93년보다 3% 정도 증원될 전망인데 이중 연구 개발직은 10

%, 생산근로직은 4%정도 증원, 사무직 등은 사무자동화 등으로 4%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직 부족 인력의 해결방안으로는 공업계 고등학교 및 직업훈련기관의 확충을 통하여 신규인력양성 강화노력이 34%, 자동화 지원을 통한 해결이 30%, 주부 등 유희인력의 활용이 25%, 병역특례 인원의 지원확대가 5%, 해외 인력의 수입 확대가 5% 등으로 나타났다.

### 생산직 고용인력의 해결 방안

구 분	조사업체	비 중(%)
공고 및 직업훈련기관의 확충을 통한 신규인력 양성 강화	31	34
자동화를 통한 해결	27	30
주부 등 유희인력의 활용	23	25
병역특례 인원의 확대	4	5
해외인력의 수입	4	5
기 타	1	1
계	90	100

또한 연구개발 인력의 수급난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인력의 질적수준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65%, 분야별 전문 교육기관의 확충을 통하여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15%인데 반해 기술개발 인력의 양적 확대 요구는 12%에 불과해 기술개발 인력의 양적부족 보다는 질적 수준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 연구개발 인력의 수급난 해결방안

구 분	조사업체	비 중(%)
기술개발 인력의 질적수준 향상	59	65
기술분야별 전문교육 기관의 신설	14	15
기술개발 인력의 양적 확대	11	12
해외 유학 인력의 유치 지원	3	4
사업내 기술대학의 확충	3	4
계	90	100

23 Page에서 계속

### 생산직 종업원 부족률

구 분	조사업체	비 중(%)
미부족	34	38
5% 미만 부족	24	27
5%~10% 미만 부족	14	16
10%~15% 미만 부족	11	12
15% 이상 부족	7	7
계	90	100

애 로 사 항	개 선요망 사항
○ 자동화기기 공급업체 및 관련 부품 구입정보 미비	○ 해외전시회 공동 참관 및 선진 기업 견학기회 제공 활성화
○ 해외전시회 및 선진기업 견학 기회 부족	○ 국내 우수업체 및 동종업체 견학 기회 제공의 활성화
○ 국내업체간 우수공장 견학 및 동종업체 상호견학기회 미흡	○ 국내외의 자동화설비 및 부품 공급, 업체목록 및 카탈로그 등 정보 입수·제공 활성화

<국산시스템 사용상의 애로>

애 로 사 항	개 선요망 사항
○ 국산장비의 정확도 및 신뢰성 저하 - 구성부품의 신뢰성 저하  - 가격면에서도 외국산에 비해 열세 - 기계의 노후화 빠름 - A/S체계 미흡	○ 국산장비의 개발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강화 - 부분적 국산화라도 이루기 위한 관련부품의 관세감면 혜택 - 자동화 관련 부품 및 기술 개발 지원활성화 - 국산개발 장비에 대한 수요 자금용 지원확대 및 정부 우선구매
○ 대규모기술 및 자금 필요설비 개발 기피	○ 대규모 투자 대상 자동화 장비의 개발지원 활성화

<세제개선>

애 로 사 항	개 선요망 사항
○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 감면 기간연장(관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현행 : 적용기간-'94. 12. 31 까지 적용대상 : 공장자동화기기 중 고시품목에 한함	○ 관세감면 대상품목 확대 및 적용기간 연장  개선 : 적용기간 -'96. 12. 31 까지 적용대상 : 공장자동화기기 및 그 핵심부품까지 적용
○ 공장자동화 투자시의 세제지원(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현행 : 중소기업이 공정개선, 시설의 자동화 등 생산성향상 시설에 투자시 다음중 택일 1) 투자액의 15%(외산은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가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2) 자산취득가액의 50%(외산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에서 특별상각	○ 공장자동화 투자시의 세제지원을 향상 및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 : 투자액의 30%(외산은 10%) 또는 자산취득가액의 80%(외산은 50%) 대기업 : 투자액의 15%(외산은 5%) 또는 자산취득가액의 50%(외산은 30%)

13 Page에서 이어서

3) 경영전망

성장성면에서 '94년의 전자산업의 평균 성장률은 '93년의 14.7%보다 높은 19.0%로 전망되며 이는 세계 경제의 회복, 작년 하반기 이후 엔고의 지속적 유지, 민간소비의 호전 등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면에서는 엔화 상승, 세계 경기 회복 및 신제품 개발 등으로 인한 수출 호조,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 고기능 복합제품 등 고

부가가치 상품 개발로 인한 내수 활성화, 임금 상승률의 둔화 등 국내의 여건의 호전으로 '93년의 2.5%보다 높은 3.0%로 전망된다.

(단위 : %)

구 분	'93년	'94년
매출액증가율	14.7	19.0
당기순이익률	2.5	3.0